

부적응 청소년집단의 애착유형연구

김 재 회[†] 주 은 선
덕성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비행과 가출과 관련된 부적응 청소년들의 애착양식을 파악하여 이들을 상담할 때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상담소와 사회복지기관, 보호관찰소 등에 있는 13세에서 18세의 부적응 청소년들의 애착양식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부적응 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애착 요인 구조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둘째, 애착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간의 애착 유형분포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애착 요인구조에 있어서는 일반 청소년 집단이 부적응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불안 요인에 더 많은 문항으로 묶이어 유의하게 높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부적응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친밀과 의존이 합해진 요인에서 더 많은 문항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불안요인을 제외한 친밀과 의존요인의 신뢰도는 현저하게 낮았다. 또한 애착을 4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부적응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안정애착은 적고 회피애착과 불안양가 애착에 있어서 더 많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기초 자료가 되어 부적응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다양한 문제의 관계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제어 : 부적응 청소년, 애착유형, 청소년 상담

김재회는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과에 재학중임. 주은선은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본 연구는 2001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주 은 선, (132-030)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19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 901-8595 E-mail : esjoo7@hanmail.net

성인 애착 연구에서는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전생애 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지닌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배성희, 1995; 옥정, 1998; 조영순, 허정철, 1997, 1999;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 1969;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Mikulincer & Arad, 1999). 초기와 후기 애착의 질은 자아 개념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대와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 즉 아동기의 주요 애착관계가 만족스럽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사랑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하며 친밀한 관계를 가치 있게 여긴다. 아동기 때 거부와 냉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사랑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며 정도가 더 심한 거부를 기대하고 또한 거부를 자아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장미자, 1998; Collins & Read, 1990).

초기 애착이론은 행동생물학적 접근을 시도한 Bowlby(1969, 1973, 1980, 1982, 1988)로부터 시작되었다. Bowlby의 이론은 사회적, 개인적 발달 모델로서, 애착은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발달적 결합과 관련이 있고, 아동의 자기 개념 생성과 사회적 조망의 발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Bowlby에 의하면 영아가 어머니와 분리될 때 나타나는 일련의 행동들은 그들이 형성한 내적 작동모델의 결과라고 말한다(장휘숙, 1998). 아동은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 작동모델을 발달시키는데 이것은 양육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돌봐주는 사람인지, 또한 자기 자신이 주의집중과 돌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신념과 기대감을 포함한다. 이 작동 모델은 그들이 새롭게 형성하는 관계(기대, 개념, 행동 등)로 이어져서 전 생애 동안 계속적으로 애착 양식의 한 기제를 제공하게 되고, 초기 관계가 성인이 되어서 맺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Collins & Read, 1990).

Ainsworth 등(1978)는 애착관계에 개인적인 차이를 연구함으로써 애착이론에 한층 발전을 가져왔다. 낯선 실험실 절차를 개발하여 영아와 양육자를 관찰함으로써 안정, 불안양가, 그리고 불안/회피의 세 가지 애착양식의 뚜렷한 패턴을 규명하였고, 이것은 양육자의 따뜻함과 반응성의 차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Bowlby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Main(1991)은 Ainsworth가 제시한 세 가지 애착양식 외에, 어느 것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불안정한-혼란된(insecure-disorganized)으로 이름한 제 4의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영아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Ainsworth의 애착이론을 아동 후기와 그들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을 성인의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에 이르기까지 확장하였다.

성인애착 척도를 사용한 애착의 유형분류로는 주요하게 Hazan와 Shaver(1987)의 3유형 분류와 Collins와 Read(1990)의 3유형 분류,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 분류가 있다. Hazan와 Shaver(1987)는 Ainsworth에 의한 애착유형을 성인의 낭만적 사랑을 이해하는 틀로 접근했다. 그들은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잘 설명한 범주를 택하도록 하고 안정, 회피, 불안양가의 세 범주로 구분했다. 초기 양육자나 연인과 맺은 안정애착은 거절이나 두려움 없이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신과 연인에게 일반적으로 신뢰할만한 것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 것으로 정신적 표상을 나타내 보였다. 불안양가 애착은 가까워지려는 갈망은 보이나 또한 연인과의 관계에 거절의 두려움도 나타내며, 타인에 대해서도 비일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회피애착은 가까워지려는 것과 의존하려는 것을 피하며,

타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자기 자신은 타인과 가까워질 필요가 없는 자주적인 사람으로 평가한다(Eliot, Smith, Murphy, & Coar, 1999 p.95; Hazan & Shaver, 1987). 결국, 애착 유형은 자기 자신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신념과 관련되어 있었다. 불안애착의 성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오해받는다고 느꼈다. 반면에 안정애착 성인들은 타인을 좋아하고, 일반적으로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신뢰한다.

Collins와 Read(1990)은 Hazan와 Shaver(1987)척도가 불연속적인 범주 척도여서 반응자들이 선택하기에 더 용이한 척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모델이 전생애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깊게 관여된다면 그들의 애착 역사와 애착유형과 관련된 이 모델을 더 세부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18개 문항의 자기보고 질문지를 개발 한 그에 의하면 세 차원(친밀, 의존, 불안)을 기준으로 하여 안정, 회피, 불안양가유형을 구분하였다. 즉 타인에 대해 편안하게 친밀감과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가치와 사회적 자신감을 더 높게 평가하고, 불안차원에 높게 표시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또한 친밀척도에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더 안정적인 애착과 관련이 있으며, 연인과의 사랑에 대한 관점에서 더 낭만적 사랑으로 연관되게 나타난 반면, 불안 척도의 점수는 불안유형과 관련되고, 강박적/의존적 사랑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또한 거부적이지 않고 온정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타인을 의지할 수 있다고 더 느끼며, 버림받는다거나 사랑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은 덜 나타내었다. 결국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긍정적 기억은 안정애착유형의 성인과 관련되어 있었고, 불안애착유형의 성인은 그들의 부모를 냉정하거나 비일관적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Collins & Read, 1990 pp.653-654).

그러나 애착유형은 변할 수 있다는 관점과 생애 후기에 중요한 관계는 개인의 애착유형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Kobak, 1994; Lewis, 1994). 최근에 Collins와 Read(1994)와 Baldwin, Keelan, Fehr, Enns와 Koh-Rangalajoo(1996)은 한 가지 애착유형에 의해 개인을 특징지을 수 없다는 진보적인 주장을 하였다. 오히려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계나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하게 다른 유형의 정신적 표상(기억들,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 기술과 전략 등을 포함해서)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개인이 최근의 영향 받기 쉬운, 그리고 빈번한 활동 등의 각기 다른 수준들을 지니고있다고 말하며, 이전에 맺은 관계나 현재 진행중인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이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특정한 관계에 있어서 행동이나 감정에 일반적인 유형보다는 더 크게 영향을 주는 특정한 한가지 정신적 표상을 기대할 수는 있다고 주장한다(김동직, 한성렬 1997; Collins & Read, 1994; Eliot, et al., 1999, p.95-96). 국내에서는 Hazan와 Shaver(1987)의 3범주 척도를 연속식 18 문항으로 엮은 Collins & Read (1990)의 성인애착척도를 사용하여 김순영(1999)이 상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Collins와 Read의 연속문항 척도에서는 Hazan와 Shaver의 범주 척도에서보다 안정애착이 줄고 불안애착의 비율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범주척도에서 불안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정애착으로 표기하는 비율을 세분해 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Bartholomew(1990)는 Hazan와 Shaver(1987)와는 대조적으로 성인애착연구에서 영아기의 애착패턴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개인의 내적 작동모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적 작동모델을 기

초로 성인의 애착 패턴을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생초기의 애착경험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내면화되어 지속될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두 개의 내적 작동모델(사랑과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혹은 사랑과 지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과 타인에 대한 두 개의 내적 작동모델(신뢰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하게 보이는 타인, 혹은 거부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타인)의 조합을 바탕으로 네 개의 애착양식을 구성하였다. 안정된(Secure) 사람은 영아와 성인연구에서 확인된 안정애착인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타인을 접근가능하고 반응적이라고 기대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몰두된(Preoccupied) 양식은 영아연구의 양가적 양식과 일치하며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의 부정적 평가를 갖는다. 두 개의 회피적 양식 중 거부적/회피적(Dismissing/avoidant) 양식은 타인은 신뢰할 수 없고 거부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신에 대해서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반면, 두려워하는/회피적(Fearful/avoidant) 양식은 타인에 대해서 거부적 회피적 양식과 동일한 기대를 가지나 자신에 대해서도 무가치감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4가지 양식의 4범주 모델을 기초로 성인애착에서의 개인차를 검증한 Bartholomew와 Horowitz (1991)는 자기에 대해 부정적 모델을 갖는 '몰두된'과 '두려워하는'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 긍정적 모델을 갖는 안정된 혹은 거부적으로 분류된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자아개념 점수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자들은 타인에 대해 긍정적 모델을 갖는 안정된 사람과 몰두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부정적 모델을 갖는 '거부적' 그리고 '두려워하는'으로 분류된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사교성 점수와 더 낮은 수준의 대인관계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장휘숙

1997). 한편 국내연구로는 Hazan와 Shaver(1987)의 불연속성의 3범주척도와 Bartholomew와 Horowitz (1991)가 제작 검증한 4범주 척도를 비교한 논문으로 장휘숙(1997), 김지현(1999)이 있다. 또한 김동직, 한성렬(1997)은 Bartholomew의 4범주 척도를 사용하여 애착유형의 분포를 조사하며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였고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한가지 이상 복합적인 애착유형을 사용한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성인의 애착유형이란 안정된 성향 변인이라기보다 관계의 목적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변인이라고 한 Baldwin외(1996)의 연구를 들어 애착유형 분류문제에도 더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영아기 애착양식과는 달리 남녀 차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Collins와 Read(1990)가 제작한 척도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아직 한국집단에서 문항을 요인 분석한 자료가 없으므로 집단별로(일반 청소년 집단, 부적용 청소년 집단) 질문지 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각 집단의 기준에 기초하여 애착유형을 다시 분류하였다. 각 애착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안정적인 애착은 친밀감을 편안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있으며 버림받는다거나 사랑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회피적인 애착인 사람은 타인을 가까이 하거나 친밀감을 느끼는데 편치 못하며 타인의 의존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며, 버림받는 것에 대하여도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불안양가애착인 사람은 친밀을 편안하게 느끼고 타인의 가용성을 분명히 확신하지만, 버림받거나 사랑 받지 못할 것에 대하여 매우 걱정한다. 즉, 안정 애착은 친밀과 의존점수가 높고 불안 차원이 낮은 사람들이고, 모두 낮으면 회피애착, 모두 높으면 불안양가애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ollins와 Read가 Hazan와 Shaver의 3범주척도를 기준으로 한 방식으로 안정, 회피, 불안유형을 구

분하였을 때 다른 유사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노라, 2000) 자료의 손실이 매우 높았다. 그러므로 Collins와 Read(1990, pp.649-650)가 제안한 불안 애착을 친밀과 의존이 높으면서 불안이 높은 불안 양가(anxious-secure)애착, 즉 친밀감을 편안하게 느끼며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도 버림받는다거나 사랑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불안과, 친밀과 의존이 낮으면서 불안이 높은 회피불안(anxious-avoidant) 애착¹⁾, 즉, 친밀감과 타인 의존을 편안히 느끼지도 않고 버림받는다거나 사랑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불안으로 구분하여 제 4유형을 분류하여 구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도록 한다. Collins와 Read(1990)는 범주척도에서 연속질문지 형태로 차원으로 분류하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p.649, foot note 1 참조)

한 개인의 애착양식은 그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기본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애착 양식을 파악하는 것은 상담에 있어 중요한 성과 변인인 상담관계, 즉 치료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내담자가 상담 장면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연관된 문제를 파악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이나 가출과 관련된 부적응

청소년들의 애착양식을 파악하여 이들을 상담할 때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상담자들이 자주 접하게되는 상담소와 사회복지기관, 보호관찰소 등에 있는 13세에서 18세의 부적응 청소년들의 애착양식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기초자료가 되어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청소년 문제를 개인의 내면 세계에만 중점을 두는 것 보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의 관계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은 어떠한 애착 요인구조를 보이고 있는가?

둘째, 부적응 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애착 하위 요인에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부적응 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애착 유형 분포에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대상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일반 청소년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2개 중학교와 경기도에 있는 2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남녀학생 357명 (남: 157명, 여: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비교집단인 부적응 청소년 집단으로는 서울 시내 사회복지기관 7곳과 지방의 사회복지기관 5 곳, 그리고

1) 제 4유형으로 Main은 성인애착 면접에서 영아의 불안정한-혼란된 애착양식과 일치하는 미해결의-혼란된(unresolved-disorganized) 유형을 제시하였다. 한편 Bartholomew는 영아기 애착패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개인의 내적 작동모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피적 애착을 두 개로 분류하여 4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한국집단에서는 최해훈(1997), 김동직, 한성렬(1997)의 연구결과처럼 회피유형보다 불안양가유형의 분포가 훨씬 많음을 보고하며 문화적 차이를 지적하였다. 역시 일본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최해훈, 1997). 따라서 한국집단의 특성에 맞게 불안양가유형을 2개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상담소 1곳과 보호관찰소 1곳에서 비행 또는 가출과 관련된 부적응 청소년 남녀 134명 (남: 67명, 여: 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참여한 인원은 총 4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Hazen와 Shaver (1987)의 3범주의 성인 애착척도를 기초로 Collins와 Read(1990)가 18문항의 연속문항으로 만든 애착척도를 김순영(1999)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Collins와 Read의 성인애착척도는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존 6문항, 불안 6문항, 친밀 6문항으로 되어있으며 1-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내적 신뢰도는 의존, 불안, 친밀에서 각각 .75, .72, .60 이었다(Collins & Read, 1990). 또한 김순영 (1999)의 연구에서는 .75, .69, .73 이었다.

Collins와 Read의 성인애착척도에서 첫 번째 하위 요인은 의존 요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필요로 할 때 타인의 의존가능한지를 느끼는 정도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1번부터 6번까지이고, 문항 번호 1, 2, 5, 6은 역채점으로 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수준이 높은 것이다(Collins & Read, 1990). 두 번째 요인은 관계에 있어서 버림받는다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서 불안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문항 번호 7번에서 12번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번호 7번은 역으로 환산한 점수로 계산한다. 세 번째 요인은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번호 13번부터 18번까지이다. 문항번호 15, 16, 18은 역으로 환산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의존 요인과 친밀 요인은 .41로 관련되어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타인을 더

편안하고 친밀감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두 번째 요인인 불안은 의존요인과 아주 약하게 관련되고 ($r=.18, p<.01$), 친밀 요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자료처리

김순영(1999)이 번안한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질문지를 사용하여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SPSSWIN 6.1을 이용해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성인애착 요인들의 점수를 종속 변수로 삼아 t-검증을 사용하여 일반 청소년과 부적응 청소년 집단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결과 및 해석

집단 별 성인애착 요인 분석

한글로 번안된 Collins와 Read (1990)의 성인애착 질문지를 주성분(principal components)분석을 하였다. 집단별 애착유형을 분류하기 전 집단별 요인분석 결과 묶여진 3요인의 문항번호와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요인구조와 부적응청소년의 친밀과 의존요인을 제외하고는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 청소년

성인애착질문지를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3요인을 지정해주고 주성분 분석한 결과인 각 문항의 Eigenvalue와 비율은 표 2와 같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40.83%를 설명한다.

일반 청소년집단요인분석결과 각 문항과 요인 간의 상관계수와 각 요인을 설명하는 변량은 표

표 1. 성인애착척도의 각 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요인	문항번호	Cronbach α
일반 청소년	요인1 (불안) : y1	9, 2, 8, 10, 5, 6, 1, 12	0.77
	요인2 (친밀) : y2	14, 13, 7, 16, 15	
	요인3 (의존) : y3	11, 18, 4, 17, 3	
부적응 청소년	요인2 (불안) : y1	5, 6, 2, 8, 9, 1	0.60
	요인1 (친밀) : y2	14, 13, 17, 18, 4, 7	
	요인3 (의존) : y3	10, 16, 12, 11, 15, 3	

표 2. 성인애착척도의 주성분 분석

	요인1	요인2	요인3
Eigenvalue	4.0028	1.9118	1.4351
proportion	0.2224	0.1062	0.0797
Cumulative	0.2224	0.3286	0.4083

표 3. 애착척도의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계수

요인명	문항 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불안 요인	9	0.74744			
	2	0.72800			
	8	0.68991			
	10	0.60372			
	5	0.56680			
	6	0.53612			
	1	0.42762			
	12	0.42749			
		14	0.68009		
		13	0.64794		
	친밀 요인	7	0.32907		
		16	-0.55895		
	15	-0.68894			
의존 요인	11		0.57018		
	18		0.56027		
	4		0.54652		
	17		0.49152		
	3		0.43871		
총 합		3.145140	2.334495	1.870052	

주. Rotation method: Varimax

3과 같다.

표 4, 5, 6은 일반 청소년 집단의 요인분석 결과를 문항번호와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요 요인의 순서는 불안, 친밀, 의존요인 순서로 나타난다.

제1요인-불안: Collins와 Read(1990)의 원문척도에서 불안요인인 8, 9, 10, 12번 문항은 동일하게 묶여 있다. 또한 2, 5, 6번 문항이 불안요인으로 묶여 있어 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문척도요인과 차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에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내가 의지할 수 있으리란 확신이 없다' 등과 같은 문항들이 불안요인으로 묶임은 한국사회가 미국사회보다 타인에 대해 확실히 배타적이고 타인과 쉽게 가까워

표 4. 일반 청소년의 성인애착척도 요인분석 제 1요인-불안

원문척도의 문항 번호와 문항내용	
9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2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사람들은 가까이에 없다.
8	나는 종종 친구/애인/배우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10	나는 종종 친구/애인/배우자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한다.
5	나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
6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의지할 수 있으리란 확신이 없다.
1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내 자신을 용납하기 어렵다.
12	상대방과 하나로 융화되고자 하는 내 욕망이 사람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표 5. 일반 청소년의 성인애착척도 요인분석 제 2요인-친밀

원문척도의 문항번호와 문항내용	
14	나는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13	나는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7	나는 버림받을까봐 별로 걱정하지는 않는다.
16	누군가가 나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해진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진다.

표 6. 일반 청소년의 성인애착척도 요인분석 제 3요인-의존

원문척도의 문항번호와 문항내용	
11	나는 상대방과 하나로 융화되고싶다.
18	종종, 나의친구/애인/배우자가 내가 편하게 느끼는정도보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4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7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려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3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때 마음이 편안하다.

지기 어려운 문화임을 엿볼 수 있다.

원문척도에서 의존문항인 1번 문항이 여기에서
는 불안요인으로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청소년 시

기에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을 가진
일반 청소년집단의 불안특성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요인-친밀: 원문척도에서와 같은 문항은 13, 14, 15, 16번으로 친밀 요인으로 묶여있으나 17, 18번 문항‘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려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종종 나의 친구/애인/배우자가 내가 편하게 느끼는 정도보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이 제외되고 의존문항으로 묶이며, 대신 7번 문항‘나는 버림받을까봐 별로 걱정하지는 않는다.원문척도에서는 역재정의 불안요인’이 들어가 있어 한국 청소년 집단에서는 미국사회보다 가족과 밀착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제3요인-의존: 원문척도에서는 ‘의존’이 제1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한국의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 의존 요인은 다른 두 요인보다 대체로 약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원문에서 나타난 의존문항은 3, 4번 문항이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려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는 17번 문항과 ‘종종 나의 친구/애인이 내가 편하게 느끼는 정도보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는 18번 문항이 청소년사이에서 점점 친구관계가 밀접해 지기 원하며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내적 신뢰도는 불안요인이 .77, 친밀 요인이 .62, 의존요인이 .50이었고 의존과 친밀을 한 요인으로 묶는 내적 신뢰도는 .64였다.

부적응 청소년 집단

성인애착질문지를 부적응 청소년 집단에서 3요인을 지정해주고 주성분 분석한 결과인 각 문항의 Eigenvalue와 비율은 표 7과 같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36.63%를 설명한다.

부적응 청소년 집단요인분석결과 각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계수와 각 요인을 설명하는 변량은 표 8과 같다.

표 7. 부적응 청소년집단 성인애착척도의 주성분 분석

	요인1	요인2	요인3
Eigenvalue	2.6288	2.3423	1.6218
proportion	0.1460	0.1301	0.0901
Cumulative	0.1460	0.2762	0.3663

표 8. 부적응 청소년집단 성인애착척도의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계수

요인명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14	0.76478		
	13	0.61697		
불안	17	0.60031		
요인	18	0.56735		
	4	0.53225		
	7	0.16608		
	5		0.64969	
	6		0.61366	
친밀	2		0.56574	
요인	8		0.55522	
	9		0.48604	
	1		0.35203	
	10			0.63255
	16			0.61805
의존	12			0.57771
요인	11			0.52092
	15			0.49687
	3			0.49444
총 합		2.351126	2.152743	2.089110

주. Rotation method: Varimax

표 9, 10, 11은 부적응 청소년 집단의 요인분석 결과를 문항번호와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요 요인의 순서는 친밀, 불안, 의존요인 순서로 나타난다.

표 9. 부적응 청소년의 성인애착척도 요인분석 제 1요인-친밀

원문척도의 문항번호와 문항내용	
14	나는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13	나는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17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려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18	종종 나의친구/애인/배우자가 내가편하게 느끼는정도보다 더친밀해지기를 원한다.
4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에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7	나는 버림받을까봐 별로 걱정하지는 않는다.

표 10. 부적응 청소년의 성인애착척도 요인분석 제 2요인-불안

원문척도의 문항번호와 문항내용	
5	나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
6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의지할 수 있으리란 확신이 없다.
2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사람들은 가까이에 없다.
8	나는 종종 친구/애인/배우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9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1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는 내 자신을 용납하기 어렵다.

표 11. 부적응 청소년의 성인애착척도 요인분석 제 3요인-의존

원문척도의 문항번호와 문항내용	
10	나는 종종 친구/애인/배우자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한다.
16	누군가가 나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해진다.
12	상대방과 하나로 융화되고자 하는 내 욕망이 사람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11	나는 상대방과 하나로 융화되고 싶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진다.
3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때 마음이 편안하다.

제1요인-친밀: 일반 청소년과 다르게 친밀 요인이 제1요인으로 묶여있고 원문 척도와도 다른 양상을 읽을 수 있다. 13, 14, 17, 18번 문항은 원문척도의 친밀 요인에 있는 동일한 문항들이지

만 일반 청소년 집단과는 다르게 나타남을 읽을 수 있다.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는 17, 18번 문항이 의존요인으로 묶여 있다. 원문척도와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역채점으로 친밀 요인 문항인 15번 '나

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진다.’와 16번 문항 ‘누군가가 나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해진다.’가 부적응청소년 집단에서는 의존요인으로 들어가 있음이 확연히 다르다. 또한 특이하게 문항 4번인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 의존 문항과 묶였으나 이와는 다르게 친밀 문항으로 묶여있고,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항 7번 ‘나는 버림받을까봐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가 친밀 문항으로 엮여져 있다. 일반 청소년 집단과 비교하면 친밀요인이 1요인으로 묶인 문항구조는 부적응 청소년 집단의 대표적 애착특성이 또래와 관계가 밀접한 것을 읽을 수 있다. 전체 친밀 요인 평균은 문항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청소년 집단의 평균은 18.41, 부적응 청소년 집단의 평균은 18.66으로 비슷하다.

제2요인-불안: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1요인 불안으로 묶였던 5, 6, 2, 8, 9번 문항이 부적응 청소년 집단에서의 2요인으로써 불안으로 묶여 있고, 일반 청소년 집단의 불안요인에 묶였던 1번 문항(‘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내 자신을 용납하기 어렵다’)이 역시 부적응 청소년 집단에서도 묶여 있어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하는데 따른 불안도 포

함되어있는 청소년 세대의 불안을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제 3요인-의존: 일반 청소년 집단과 같이 의존요인이 제3요인으로 묶여 있으며 10, 11, 12번의 불안문항 외에 15, 16번 문항(친밀 요인에서 설명됨)이 역으로 채점되어 의존문항에 속해있고, 3번(‘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때 마음이 편안하다’) 문항이 마지막으로 묶여 있다. 일반 청소년 집단은 불안요인과 친밀 요인이 1, 2 요인으로 묶여 있는데 부적응청소년 집단에서는 친밀과 불안요인의 순서가 바뀌어 있고, 의존은 두 집단이 동일하게 3요인으로 묶이면서 일반청소년 집단보다 하나의 문항이 더 많다. 따라서 의존점수가 비교집단보다 높아진다. 부적응 집단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불안요인이 .59, 친밀 요인이 .27, 의존요인이 .11이었고 의존과 친밀 요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한 내적 신뢰도는 .32로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신뢰도 결과가 나왔다. 이는 부적응 청소년 집단이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적응 집단청소년들에게 실제 설문한 경험으로는 불성실하게 답한 설문지는 미리 제외하였지만 문항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과 문항의 이해조차 어려운 청소년들을 볼 수 있었다.

표 12. 애착의 하위요인평균점수의 집단 간 차이

애착 하위요인	비교집단	N	Mean	SD	T
불안	일반청소년	357	19.35	5.3	4.80***
	부적응청소년	134	17.14	4.2	
친밀+의존	일반청소년	357	34.91	5.2	
	부적응청소년	134	38.84	5.0	-7.53***

주. ***p<0.001

애착의 하위요인의 집단비교

두 집단에서 애착하위요인들의 평균의 차이를 바탕으로 일반 청소년과 부적용 청소년 집단을 비교한 결과는 표 12에서 보여주고 있다.

일반청소년 집단과 부적용 청소년 집단에서 애착의 하위요인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흥미롭게도 불안요인에서는 부적용 집단보다 오히려 일반청소년집단에서 더 높은 점수였다. 이는 집단 간 요인분석에서 자녀집단의 불안요인이 가장 많은 문항으로 묶인 결과이지만 일반청소년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며 타인의 수용에 매우 민감한 청소년 시기의 특징을 잘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청소년 집단의 친밀 문항은 5개이고 부적용 청소년 친밀 문항은 6개로 묶이어서 나온 친밀요인의 평균값은 비슷하였다. 의존요인에서는 부적용청소년 집단에서는 6문항에 평균값이 20.17이고, 일반청소년 집단에서는 5문항에 평균값이 16.49로 같은 안정애착일지라도 친밀 보다 의존이 높은 부적용 청소년집단의 안정애착은 일반청소년 집단의 안정애착보다 덜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친밀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친밀과 의존을 합한 평균값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애착의 하위요인 중 친밀과 의존요인은 항상 같은 짝으로 묶이어서 애착유형을 구분하게됨으로 불안요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하고 친밀과 의존문항을 합한 요인의 평균값으로 t-검증을 하였다. 역시 불안요인에서의 집단 간 차이 결과도 일반 청소년이 불안을 유의하게 높게 보고하고 있고, 친밀과 의존을 합한 요인에 있어서는 일반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부적용청소년 집단이 유의하게 높아 두 집단의 애착특성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집단에서 애착유형 분포 비교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요인인 불안, 친밀, 의존요인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집단의 특성에 맞게 다시 4유형으로 분류하고 애착유형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친밀과 의존요인이 각 집단에서 평균보다 점수가 높고 불안요인에서 낮으면 안정애착집단으로 분류하였고, 모든 요인에서 낮으면 회피애착으로 분류하였다. 불안애착에서는 불안요인이 친밀, 의존요인과 함께 높으면 불안양가애착으로 명명하고, 친밀과 의존요인이 낮으면서 불안이 높은 경우는 불안회피애착으로 분류해 내었다.

표 13을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집단보다 부적용 청소년 집단에서 안정애착의 비율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불안애착 중 회피애착과 불안양가애착은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애착의 하위요인의 평균치가 일반 청소년집단과 다른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음에도 안정애착 비율이 더 적은 것은 수치상의 의미보다 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회피불안애착이 다른 애착유형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13. 애착유형 분포 비교

애착유형	일반 청소년 %	부적용 청소년 %
안정애착	36.7	29.9
회피애착	17.1	20.9
불안양가애착	17.6	21.6
회피불안애착	28.6	27.6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비행, 가출과 관련된 부적응 청소년들의 애착양식을 파악하고 또한 내적작동모델로 내면화되어지는 청소년의 애착을 연구하여 상담에 있어서 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내면세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의 관계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선 요인분석 결과에 대해 다루고 부적응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애착 하위 요인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 두 집단의 애착 유형분포도에서 시사하는 바와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제언을 한다.

첫째, 요인 분석의 경우 이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이하 AAS) 세 요인으로 지정하여 주성분 분석을 하였고 Collins와 Read의 AAS를 바탕으로 각 집단의 애착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이를 원문척도와 비교와 한국의 청소년집단 간의 비교를 알아볼 수 있다. 우선 Collins와 Read의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문척도(AAS)문항과 조금 다르게 묶여진 것은 문화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 준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사회보다 한국사회가 더 가족적으로 밀착된 것을 읽을 수 있었고 버림받을 것을 걱정하는 불안도 덜한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미국문화에 비해 배타적이고 타인과 쉽게 가까워지기 어려운 불안이 드러나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문항을 이해할 때에 한국집단에서는 부정의 의미보다는 긍정의 의미로 문항을 이해하는 경향이 더 뚜렷하였다. AAS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범주척도를 사용한 연구보다 안정애착비율이 대체적으로 조금 낮게 나온 Collins와 Read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회피애착보다 불안양가와 불안회피의 불안애착의 비율이 더 많은 것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

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김동직과 한성렬(1997)이 조사한 애착유형의 분포에서나, 성인애착면접(장미자, 1998; 최해훈, 1997)으로 애착유형을 분류한 분포에서 다같이 Hazan과 shaver(1987)와 Bartholomew(1990)의 연구와는 다르게 불안양가애착유형이 회피애착유형보다 더 많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김동직, 한성렬은 미국성인과 대학생들에게서 불안양가비율보다 회피애착의 비율이 더 많은 현상을 문화적인 차이로 설명하였다. 미국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에서는 타인과 구별되는 개별적인 존재로서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의 독립과 자율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두기 때문에 낮은 의존욕구와 높은 독립욕구 및 자율성의 침해에 거부를 느끼는 회피형이 더 선호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반면 한국은 집단주의적이며 관계 지향적인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높은 상호의존욕구가 정서적으로 완전히 친밀해지기를 더 원하는 양가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각 집단마다 두 그룹을 합한 불안애착 비율이 회피애착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청소년과 부적응청소년 집단이 보여준 주요요인 중심으로의 비교는 한국 청소년 집단이 여러 면에서 불안정한 시기이며 자라나는 청소년으로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또래사회에 적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 불확실성들이 더 불안요인을 1요인으로 묶이게 한다고 여겨진다. 일반 청소년 집단의 1요인이 불안인 것과는 다르게 친밀요인이 1요인으로 묶인 것은 부적응 청소년 집단에서는 문항특성으로 보아 일반청소년 집단에서 보여지는 불안보다는 친밀한 관계형성에, 특히 그들의 사회 문화적 특성상 또래와 더 많이 어울리고 서로 밀접하게 엮이어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친밀 요인이 더 일차적인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둘째, 일반청소년과 부적응 청소년 두 집단에서

의 애착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요인별 평균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불안요인점수가 높은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불안요인이 부적용 청소년 집단보다 많은 문항으로 묶인 까닭이기도 하지만 Ellkind (1984)가 설명하는 청소년 특유의 불안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개념화하듯이 타인이 생각도 개념화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여 생기게 되는 청소년 특유의 인지적 왜곡현상인 '가상적 청중(imagery audience)'이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자신이 타인들의 관심의 초점이 된다는 신념을 가진 결과 자기-자각(self-awareness)이 더욱 고양되면 자기 자신들이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 외모, 생각, 감정 등) 보이는가에 집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기 쉽고 이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 특성으로 자기도취적 욕구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 자기(ideal self)와 현실적 자기(real self)간에 괴리가 커질 위험이 많아서 그 불일치가 자신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통스런 자기-자각이 더욱 첨예화되어 우울하거나 불안한 정서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신민섭, 1996). 또한 Collins와 Read(1994)와 Baldwin 등(1996)이 주장하듯이 애착유형은 개인이 최근의 영향 받기 쉬운, 그리고 빈번한 활동 등의 각기 다른 수준들을 지니고있다는 것과 이전에 맺은 관계나 현재 진행중인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이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 청소년들의 높은 불안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부적용청소년 집단에서는 친밀과 의존요인이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는 부적용 청소년 집단에서 묶여진 두 요인의 문항수가

한 문항씩 더 많은 까닭이기도 하지만 같은 안정 애착유형이라 할지라도 친밀보다 의존이 높은 부적용 청소년 집단의 안정애착은 일반 청소년집단의 안정애착보다 덜 안정애착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타인의 가용성을 수용하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덜 긍정적이고, 따라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 안정애착을 기저로는 일반 청소년 집단보다 덜 적응적 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적 신뢰도 역시 부적용 청소년 집단의 친밀과 의존의 신뢰도는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불안요인의 신뢰도는 비교적 신뢰할 수 있게 나와서 부적용 청소년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청소년의 불안특성이 신뢰성 있게 보여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애착 하위요인 각각의 평균을 각 집단기준으로 애착유형을 분류하였음에도 부적용 청소년 집단에서 안정애착비율은 더 적었다. 그러므로 수치상 나타나는 비율보다 집단 간에 또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부적용 청소년을 연구한 기록들을 보면 연구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부모의 교육수준정도, 낮은 결합력, 높은 갈등, 낮은 경제수준 등이 비행청소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박범룡, 류영호, 조동환, 김정기, 1999; 조동환, 박영숙, 김정기, 1997; Fowler, 1980; MaGee, Williams, & Silva; 1984). 또한 부적용 청소년들의 특성을 비교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외현적으로 흡연, 음주, 폭력(김현수, 1998)뿐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 부적용 양상이 관련되어 있고(이재광, 1998; Farnngton, Brion, 1982) 특히 우울, 불안과 연관이 있어(Conger, & Petterson, 1984) 특징적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공격행위나 약물남용, 난잡한 성행위 등 비행의 기저에 가면성 우울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박지도, 2001; Krakowski, 1970; Weiner, 1980).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재광 등(1998)에 의하면 선행연구 Carlson

(1980)의 우울과 불안이 비행청소년들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보고들과 같이 일반청소년보다 비행청소년들이 더 불안하고 우울했으며 억압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방식은 부적응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Robert, Godlib와 Kassel(1996)은 애착에서의 자기존중감,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연구하면서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이 자신과 중요한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으로 구성되는 내적표상을 형성하여 역기능적 신념과 낮은 자기개념을 갖게되고 이것이 다시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신노라, 2000). 따라서 안정애착의 비율이 확연히 적은 부적응청소년 집단은 부모의 양육태도도 애정적이지 않고 통제적으로 인식하며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해 더 역기능적인 애착형성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부정적 신념을 지니며 그것을 매개로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적 부적응 양상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정애착 외에 불안정애착들의 비율에서는 회피애착, 불안양가애착이 부적응 청소년 집단에서 더 많이 나왔다. 그러나 회피불안애착에 있어서는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자녀 집단의 사춘기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지니고 있는 애착이 친밀과 의존을 낮게 지각하면서 불안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eeney와 Noller(1990)에 따르면, 안정애착의 소유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신뢰감과 자신감이 높았으며, 애정관계에서 보다 표현적이고 성공적인 반면, 회피형인 사람들은 보다 적대적이고 부정적이며 불신감을 가지고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애착요인분석결과에서 청소년의 회피, 불안애착유형의 높은 비율이 나타내는 의미와 같은 맥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냉담하거나 비밀관적 이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

신과 세상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 사랑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할까 봐 걱정하는 경향을 지닌 불안애착을 보였다 (Collins & Read, 1990).

본 연구를 통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출과 비행 행동 등과 관련된 부적응 청소년들의 애착유형을 알아봄으로써 이들에게 긍정적 자아상을 심어주고, 안정애착형성, 즉 바람직한 내적작동 모델을 지닐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모교육에 역점을 두며, 개인상담과 더불어 가족치료적 접근은 청소년 상담에서 큰 효용성을 지닐 것이라고 강조할 수 있다. 인간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변화를 하든지 악화되는 변화를 하게 되든지 결별과 이별로 관계가 단절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정애착비율이 현저하게 적고 회피, 불안애착유형이 많은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청소년 상담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부적응 청소년 집단의 설문조사에서 비교연구자료로 사용할 수 없었던 50% 이상의 편모나 편부 가정, 즉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관계 와해까지 가버린 가정에 부적응 자녀가 많은 것은 더욱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결과로 일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애착의 불안요인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이들이 잠재된 내담자들이라고 보여지며 현재 한국 청소년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청소년 상담 및 생활지도에 있어서 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가정이 있는 것 등의 외부 조건으로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내면세계, 특히 다양한 문제의 관계 측면을 이해하고 환경과 관계를 매개로 접근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의 특성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일 반청소년들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학교 학생으로 하였기에 전국의 청소년으로 일반화시키는데 신중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적용청소년의 경우, 상담 소와 사회복지 기관, 보호관찰소 등의 다양한 기 관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들 내 에서의 개인차가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한가 지 애착 유형으로 특징지을 수 없다는 최근의 연 구동향을 고려할 때 하나의 척도로 복합적인 애착 현상을 측정하려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다. 그러므 로, 후속연구로는 애착의 하위요인에서 드러나는 청소년의 불안양식을 부적용 청소년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며, 애착척 도의 요인분석시 원문척도와 대상이 같게 대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한국집단의 특성을 비교하 는 것과 더불어 애착유형의 분류방식에 있어서 더 심층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동직, 한성렬 (1997). 한국대학생의 애착유형 분 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91-109.
- 김순영 (1999). 내담자의 부모유대 및 성인 애착능 려이 상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1999). 성인초기애착유형에 따른 자기개념 과 자기가치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현수 (1998). 청소년 비행행동의 판별요인 분석. 신경정신의학, 37, 483-491
- 박범룡, 류영호, 조동환, 김정기 (1999). 불량행위청 소년의 가족 폭행에 관한 사회 정신의학적 고찰(4). 신경정신의학 38, 583-590
- 박의순 (1997). 애착과정으로 본 한국부부의 사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도 (2001). 불량행위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학 교폭력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정신 병리(5). 신경정신의학 40(4), 640-655.
- 배성희 (199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신노라 (2000). 성인애착유형과 대인불안수준의관 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민섭 (1996). 청소년의 자아상과 사회적 민감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청소년정신건강, 7 (1), 61-67
- 이시형(1991). 대인공포증의 치료. 서울: 집현전.
- 이재광(1998) 비행청소년의 불안, 우울, 억압,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7(3), 493-499
- 옥 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 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성일(1996). 청소년의 우울증과 우울 행동 장애 에서의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소아정신 의학, 7(1), 34-43
- 장미자 (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경희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 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장휘숙 (1998). 애착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 델, 남편에 대한 애착 및 자녀의 생활만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 (2) 121-133
- 조동환, 박영숙, 김정기 (1997). 불량행위 청소년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2). 신경정신의학

35. 1301-1311
- 조영순 (199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애착이 대인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훈 (1997).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표상유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철 (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 수준과의 상관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ldwin, M. W., Keelan, J. P. R., Fehr, B., Enns, V., & Koh-Rangarajoo, E. (1996). Social 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style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94-109.
- Bartholomew, K. (1990). *Attachment style in young adults: Implication of self-concept 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1.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2. loss*.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3.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Carson, G, & Cantwell, D. (1980).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37, 179-183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58(4), 644-663.
- Collins, N. L. & Read, S. J. (199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working model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5, 53-90.
- Conger, J. J., & Peterson, A. C. (1984). *Adolescent and youth*.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 Eliot R. Smith, Murphy, J. & Coats, S. (1999). Attachment to groups: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1), 94-110.
- Elkind, D. (1984). *All grown up and no where to go : Teenagers in crisis*. Reading, MA: Addison-Wiley Publishing Company.
- Farrington, D. P., Biron, L., Le Blane, M. (1982). Personality and delinquency in London and Montreal. In J. C. Gunn & D. P. Farrington (Eds.), *Abnormal offender: Delinquenc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ew York: Wiley.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owler, P. (1980). Family environmental and early behavioral development: A structural analysis of dependencies. *Psychological Report*, 47, 611-617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Kobak, R. (1994). Adult attachment: A personality or relationship construct?. *Psychological Inquiry*, 5, 42-44.
- Krakowski, J. (1970). Depressive reaction of children & adolescence. *Psychosomatics*, 2, 429-433
- Lewis, M. (1994). Does attachment imply a relationship or multipl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 47-51.
- MaGee, R, Williams, S., & Silva, P. (1984).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aggressive, hyperactivity and aggressive/hyperactivity boys.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Psychiatry*, 23, 280-284
- Main, M. (1991). Metacognitive knowledge, metacognitive monitoring, and singular(coherent) vs. multiple (incoherent) model of attachment.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pp. 127-159). London: Tavistock/Routledge.
- Mikulincer, M., & Arad, D. (1999).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Cognitive Openness in Close Relationships: A Test of Chronic and Temporary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4) 710-725.
- Mikulincer, M. (1997). Adult attachment style and information proc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curiosity and cognitive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71-1230.
- Nichols, K. A. (1974). Severe social Anxiety.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47, 301-306.
- Robert,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10-320
- Weiner, I. B. (1980). Psychopathology in Adolescence. In J. Andelson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130-164). New York: Wiley.
- Whitebeck, L. B., Hoyt, D. R., & Ackley, K. A. (1997). Families of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 A comparison of parent/caretaker and adolescent perspective of parenting, family violence and adolescent conduct. *Child Abuse Neglect*, 21(6), 517-528.
- 원고접수일: 2001. 9. 29
수정원고접수일: 2001. 11. 26
게재결정일: 2001. 12. 4

Attachment Style of a Group of Juvenile Delinquency

Jeahee Kim Eunsun Joo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attachment style of group of juvenile delinquency in comparison to averag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135 adolescents in juvenile delinquency program in counseling centers, social welfare offices and probation offices in Seoul and Kyung-ki area were selected. For the comparison group of average adolescent sample, a total of 375 students from the 8th grade of junior high school (male: 157, female: 200) in Seoul and Kyung-ki area were selected.

Adult Attachment Scale(AAS) developed by Collins & Read(1990) was used in this study. AAS consisted of 18 questions based on Hazan & shaver(1987) and it was translated by Kim (1999) in Korea. In this study, three questions are asked. First, how are the factors of Adult Attachment Style different from a group of juvenile delinquency compared to average adolescents? Second, how are the specific Adult Attachment Style different from a group of juvenile delinquency compared to average adolescents? Third, how are the distribution of 4 attachment styles different between these two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the anxiety factor was different between groups and unexpectedly, the average adolescent group showed high in anxiety factor compared to the group of juvenile delinquency. Also, the group of juvenile delinquency was significantly high in closeness & dependency style compared to the average adolescents. Further comments were suggested for the development of counseling juvenile delinquencies.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cy, attachment style, adolescent counseling